



책읽는꿈 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아이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책을 만듭니다.

숲에서 만난 이야기



책읽는꿈

비매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길 48
전화 02-332-2672 팩스 02-338-2672
홈페이지 www.bearbooks.co.kr
SNS Instagram @bearbooks_publishers

책놀이책

책읽는꿈



숲에서 만난 이야기

채인선 글 · 배현주 그림 | 책읽는곰 펴냄

예나는 새 그림책을 가지고 숲으로 갑니다.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라서 숲에 사는 동물들에게 읽어 주려는 것이지요.

예나가 그림책을 소리 내어 읽자, 동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나의 그림책에는 덩치 큰 곰을 동생 삼고 싶어 하는 다람쥐 형님이 나옵니다.

다람쥐 형님이 하품을 하면 예나와 동물들도 하품을 하고,

다람쥐 형님이 코 고는 시늉을 하면 예나와 동물들도 코 고는 시늉을 합니다.

모두가 그림책에 빠져들던 그때, 이야기 속 곰이 다람쥐 형님의 목덜미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숲속 동물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나워지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지 머리를 바짝 들이대지요.

하지만 예나도 처음 읽는 책이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모두 위험해질 텐데, 예나는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채인선 작가는...

뒷문을 열면 바로 숲이 나오는 충주의 한적한 산골 동네에 일요일마다 다락방 도서관으로 변신하는 붉은 지붕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렇게 쓴 글을 다락방 어린이 손님들에게 읽어 주며 살고 있어요. 《내 짝꿍 최영대》, 《민지와 다람쥐》,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원숭이 오누이》, 《딸은 좋다》, 《아름다운 가치 사전》, 《나의 첫 국어사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어린이책을 썼습니다.

채인선의 이야기 정원 블로그 : blog.naver.com/arrige_8649

정답

책놀이 3

① 곰 ② 너구리 ③ 여우 ④ 오소리 ⑤ 사슴

책놀이 7

(순서대로) 발바닥, 가시, 형님



그림책을 보기 전에

1. 표지 그림 속 여자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책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2.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 준 경험이 있나요?
3. 숲에 가 본 적이 있나요? 숲에는 어떤 동물들이 사나요?

그림책을 보고 나서

1. 예나가 그림책을 읽어 주니 어떤 동물들이 다가왔나요?
2. 그림책의 마지막 장은 원래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3. 착한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책놀이 1 내 동생을 소개해요

예나의 그림책 속 다람쥐 형님은 큰 곰을 동생 삼고 싶어 했어요.
나에게는 어떤 동생이 있나요? 없다면 어떤 동생이 있으면 좋을지 상상해 보아요.

* 여기에 동생 모습을 그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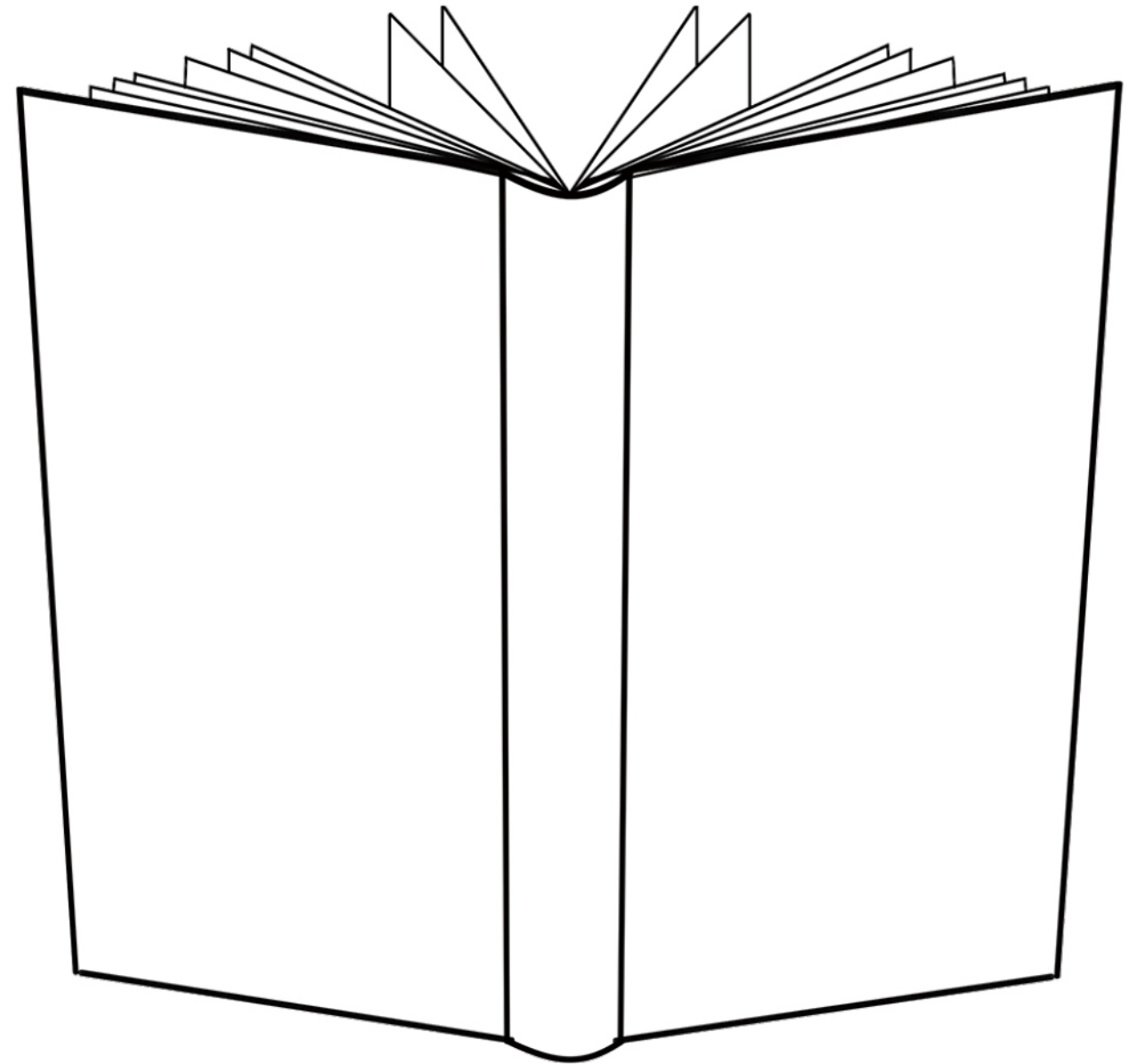
이름

나이

성격

책놀이 2 숲속 동물들을 위한 그림책

예나는 숲속 동물들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었어요.
내가 예나라면 어떤 책을 읽어 주고 싶나요?
좋아하는 책, 상상하는 책, 어떤 것도 좋아요. 제목을 쓰고 표지를 꾸며 볼까요?



책놀이 3 숨은 동물 찾기

숲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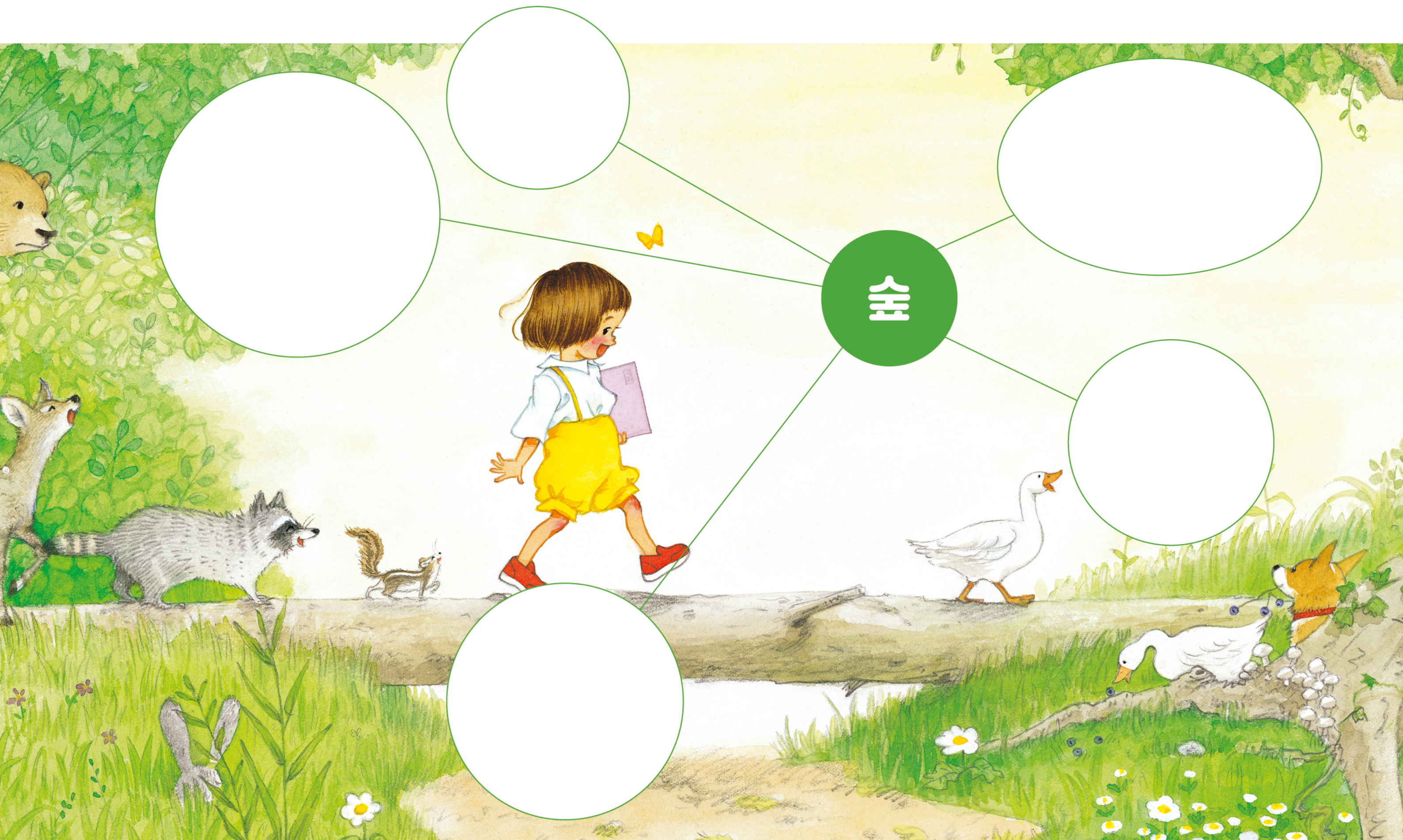
수풀 속에 숨어 있는 동물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맞춰 볼까요?



1 : 2 : 3 : 4 : 5 :

책놀이 4 '숲' 생각 지도 만들기

여러분은 숲에 가 본 적이 있나요? 숲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나 그림을 동그라미 안에 자유롭게 쓰고 그려 봅시다.



책놀이 5 다람쥐 형님의 동생은 나야 나!

예나의 그림책 속에서 다람쥐 형님은 동생을 찾아 이곳저곳을 쏘다녔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어떤 동물이 다람쥐 형님의 동생이 되면 좋을지 골라 볼까요?

“누구를
동생으로 삼을까?”



“오리, 개구리, 곰,
여우, 토끼, 너구리...
동생 후보가
많기도 많구나.”



후보 1:

왜 골랐나요?

별점 ☆ ☆ ☆ ☆ ☆

후보 2:

왜 골랐나요?

별점 ☆ ☆ ☆ ☆ ☆

후보 3:

왜 골랐나요?

별점 ☆ ☆ ☆ ☆ ☆

후보 4:

왜 골랐나요?

별점 ☆ ☆ ☆ ☆ ☆

책놀이 6 날 따라 해 봐요, 요렇게!

예나의 그림책 속에서 곰이 하품하자 다람쥐 형님은 곰을 따라 하품했어요.
그림책을 읽던 예나와 동물들도 모두 “하-암!” 하고 하품했지요.
동물의 울음소리나 동작을 흉내 내는 말을 써 보고, 직접 따라 해 볼까요?



예시



찍찍
쫓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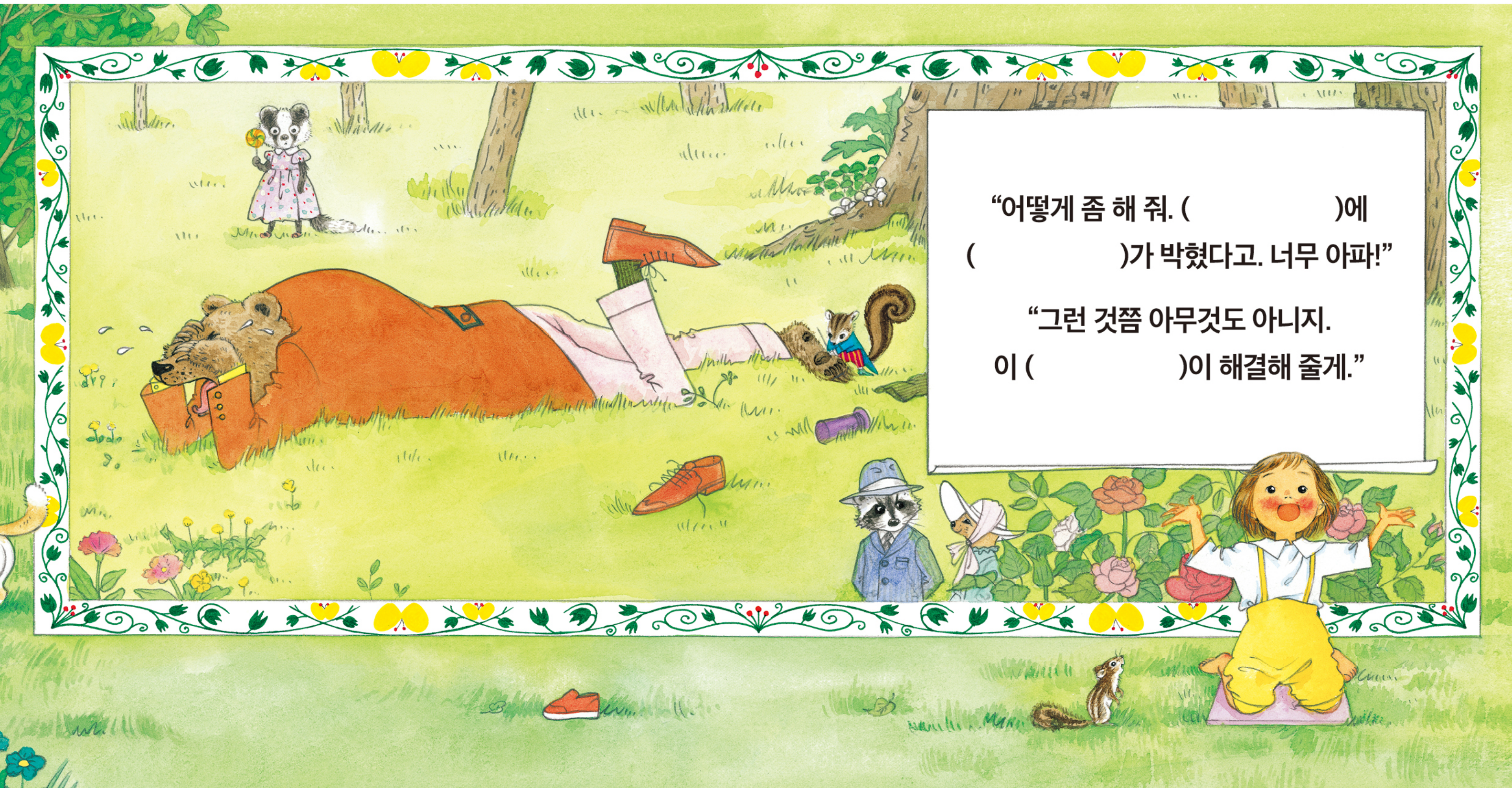
그림책에서 곰이 다람쥐 형님의 목덜미를 덥석 잡자, 숲속 동물들도 험악해졌어요.

예나는 얼른 책장을 덮고 결말을 마음대로 지어내서 들려주었지요.

예나가 지어낸 이야기를 떠올려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보세요.

“어떻게 좀 해 줘. ()에
()가 박혔다고. 너무 아파!”

“그런 것쯤 아무것도 아니지.
이 ()이 해결해 줄게.”



책놀이 8 그림책 마지막 장면 상상하기

예나가 숲에서 읽지 않은 마지막 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도 써 봅시다.



배현주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과 디자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습니다. 첫 그림책 《설빔》으로 제27회 한국어린이도서상을 받았습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 《설빔》, 《내가 안아 줄게》, 《팡이의 눈물 사용법》이 있으며, 그린 책으로 《원숭이 오누이》, 《나는 내가 좋아요》, 《숲에서 만난 이야기》, 《난 정말 행복해》, 《똑똑 누구야 누구?》 등이 있습니다.



팡이의 눈물 사용법

배현주 그림책

“울면 안 된다고? 울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에 안 들면 울기부터 하는 어린이를 위한 특급 처방전

팡이는 감나무 집 코기 씨네 귀염둥이 막내예요. 가족들은 팡이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지요. 그런 팡이에게도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성에 안 차는 일이 생기면 울음부터 터트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 아빠, 형까지 모두 나서서 어르고 달래야 겨우 울음을 그치지요.

팡이는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렸어요. ‘이렇게 맨날 울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울었더니 먹기 싫은 당근을 안 먹게 됐어요. 하기 싫은 빗질도 안 했어요. 형이 아끼는 옷도 빌려 입을 수 있었지요. 앙앙 울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앙앙 울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